

연명의료결정 제도 시행 후 실태 조사

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*오규만, 김제훈

목적: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연명 의료의 윤리적, 법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. 1997년 보라매 사건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며, 이후 "호스피스,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"이 2018년 2월 4일 시행되었다. 2018년 2월부터 본원에서도 해당 법안을 시행하였으며, 이후 1년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왔다. 법률 시행 후 본원에서의 시행 실태를 확인하였다. **대상 및 방법:** 본원에서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8월 1일까지 입원했던 환자 중 동의서를 작성한 334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나이, 성별, 사망 장소, 재원 기간, 동의서 작성 시기와 작성 후 사망까지의 기간, 심폐소생술, 기계 호흡, 투석, 승압제 사용 등을 조사하였다. 또한 환자의 malignancy 여부에 따라 이를 비교해보았다. **결과:** 33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, 평균 연령 68세였다. 입원 후 동의서 작성시까지는 13.4일이었고, 작성 후 사망까지의 시간은 17일이었다. 작성 장소는 일반 병동 183명(54.8%), 중환자실 104명(31.1%), 응급실 47명(13.8%)이었으며, 동의서 종류는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 확인서 178명(53.3%)이 가장 많았다. 암 환자군(231명)에서는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 확인서로 DNR을 작성한 경우가 43.7%였으나, 비암 환자군(103명)에서는 74.8%으로 비암환자군에서는 보호자가 DNR을 작성하는 비율이 높았다. 암 환자군은 비 암환자군에 비해 CPR 뿐만 아니라 기계 호흡, 투석, 항암 치료와 같은 적극적 치료 전체를 거부하는 비중이 높았다. **결론:** 환자의 질병군에 따라 작성 장소, 연명 의료의 세부 항목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특히 암 질환의 경우 환자가 DNR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, 적극적으로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이는 암에 대한 사회와 환자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. 또한 비암환자군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. 급성기 질환에서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이다. 이런 경우 의사의 반복적이고 세심한 설명이 환자 및 보호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Variables	Malignancy (N=231)	Others (N=103)	P-value
	n(Range or %)	n(Range or %)	
Gender			0.77
Male	149(64.5%)	64(62.1%)	
Female	82(35.5%)	39(37.9%)	
Median Age(yrs)	65.2(6-92)	73.6(19-95)	
Place get DNR			<0.001
General ward	162(70.1%)	21(20.4%)	
Intensive care unit	44(19.0%)	60(58.3%)	
Emergency room(ER)	25(10.8%)	22(21.4%)	
Survival or death place			0.047
Survival	13(5.6%)	14(13.6%)	
Death at our hospital	185(80.1%)	76(73.8%)	
Death at other place	33(14.3%)	13(12.6%)	
Median duration of hospitalization (days)			0.081
ADM to DNR permit	14.6(0-120)	10.6(0-163)	
DNR permit to death	18.2(0-233)	14.0(-241)	0.306
DNR formation			<0.001
연명의료계획서	79(34.2%)	8(7.8%)	
사전연명의료의향서	23(10.0%)	5(4.9%)	
환자의사추경	28(12.1%)	13(12.6%)	
환자 가족 의사 확인서	101(43.7%)	77(74.8%)	
DNR contents			0.678
Cardiac resuscitation	231(100%)	102(99.0%)	
Intubation&ventilator	207(89.6%)	60(58.3%)	<0.001
Hemodialysis	208(90.0%)	67(65.0%)	<0.001
Chemotherapy	196(84.8%)	103(100%)	<0.001
Intensive end of life care before DNR permit			<0.001
Inotropics	159(68.8%)	39(37.9%)	
Intubation&ventilator	205(88.7%)	50(48.5%)	<0.001
HFNC	201(87%)	83(80.6%)	0.175
Hemodialysis	215(93.1%)	75(72.8%)	<0.001
Cardiac resuscitation	228(98.7%)	85(82.5%)	<0.001
Intensive end of life care before DNR permit			<0.001
Done	86(37.2%)	81(78.6%)	